

광주 5개구 공직자, 격무·기피 업무 우선순위는 '교통지도'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공직자들은 교통지도 업무를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지도 업무는 자치구 별 기피 업무 선정 과정에서 매차례 높은 순위에 해당. 관련 직책 공직자들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부족과 민원인과의 대면 마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2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6~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청 내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운용 중이거나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광산구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서구가 오는 25일부터 5일 동안 직원 설문조사를 받아 최종 선정한다. 다른 자치구는 지난해 또는 과거 선정 절차를 마치고 운용 중이다. 선정 주기는 6개월에서 4년까지 다양하다.

공직자들이 선정한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교통지도 관련 부서·업무로 파악됐다.

인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어

단속 인력 부족·민원인 마찰 애로사항... 구별 특성 반영 격무·기피 업무도 눈길

서구, 아파트 철거 과정 빗발 민원 격무... 북·광산구, '생존권' 노점상인 응대 고충

려움, 관련 과태료 직접 부과 부서인 점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유선·대면 마찰 고충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격무·기피부서 순위를 매기는 서·남구의 경우 최근까지 교통지도 관련 부서가 최상단에 위치했다.

서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교통지도과를 격무·기피 1순위 부서로 선정했다. 남구도 2019년부터 4년 동안 교통지도팀을 기피 1순위 부서로 지정하고 가장 높은 근무성적평점점수 가점을 부여했다.

순위를 나누지 않는 대신 모든 부서 별로 격무·기피 업무를 집계하는 동·북·광산구의 경우에도 교통지도 과태료 부과·민원인 응대 등 업무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격무·기피부서 또는 업무 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별 특색이 반영된 결과도 나왔다.

동구 직원들은 역점 사업인 총장르네상스 사업을 격무·기피 업무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인들의 민원들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구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기후환경과를 격무·기피 1순위로 선정하고 관리했다. 붕괴 참사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빗발친 비산먼지 등 민원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붕괴 참사 이후 진행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는 관련된 민원이 여러 부서에 걸쳐 수백여 건 빗발치는 등 일부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다.

말바우시장 내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점상인들의 집단행동이 조직화된 북구는 건설과 내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업무가 기피 업무로 선정됐다.

광산구도 기피업무 선정 과정에서 북구와 비슷한 내용이 반영됐다. 광산구가 올해 초 진행한 격무·기피업무 선정 결과 건설과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가 43.5%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치구들은 격무·기피 부서 또는 업무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일할 경우 매월 근무성적평점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국내·외 연수 신청에 우선순위를 주는 등 인사과과에 반영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격무·기피 부서 또는 업무에 자발적으로 나선 직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른다"며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사기 진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지난 17일 광주 동구 광주천변 인근에서 발견된 생태계교란종 붉은귀거북 2쌍과 환삼덩쿨. 사진=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계곡

생태교란종 몸살 국가하천 광주천

광주천 생태교란종 붉은귀거북·환삼덩쿨 발견 포식성↑ 배스·생장 막는 가시박도 광범위 서식 2년간 교란식물 제거 멈춤... "올해 퇴치 예정"

국가 하천인 광주천에서 붉은귀거북과 환삼덩쿨 등 생태 교란 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계적인 퇴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 지역 환경단체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동구 광주천 인근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2마리가 일광욕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같은 날 생태계교란종으로 분류된 환삼덩쿨도 천변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지난 2001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은 번식력이 뛰어나고 치어를 먹어 치우지만 국내 생태계에 천적이 없다.

반려 동물로 길러지던 붉은귀거북은 하천에 버려지며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천에도 2000년대부터 발견되면서 현재는 동구 중심사 인근과 서구 광암교 등 광주천 일대에 넓게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 포식성이 강한 배스와 블루길도 광주천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5월 이후에는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양미역취, 돼지풀, 도깨비가지 등이 자라나 산책로를 뒤덮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물은 생장이 빠르고 주변 식생을 뒤덮어 토종 식물의 성장을 막는다.

광주천에 생태계교란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지만 교란종의 종류와 규모 등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년 해오던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작업마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 2년간 멈췄다.

홍기혁 광주천모래톱지킴이 회장은 "균형 잡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생태계교란종 조사와 체계적인 퇴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다른 습지에 서식하는 교란종 퇴치 작업을 벌이면서 광주천 교란 식물 제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 교란식물을 제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주천에는 멸종위기종 I급 수달, II급 삼, 천연기념물 원앙 등이 서식하면서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송현근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민간 자문단 운영 개시

항공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자문단 구성... 유가족에 분야별 자문, 조사 해설서 발간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법은 공포 2개월 뒤 시행되지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 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법 시행 전 선제적으

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문지식 제공 ▲질의 조력 ▲해설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사

항 등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진행하며, 유가족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원한다. 또한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조사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특히, 발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담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17일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고, 같은 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 유가족협의회 및 사조위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첫 회의 논의 결과, 자문단은 21일 이후 유가족 총회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사조위 브리핑 시 설명 지원, 수시 자문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주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촉구 거리행진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광주시와 시외버스터미널을 상대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광주420대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금호고속은 재정 부담과 안전성을 이유로 장애인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광주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도 되지 않아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동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